

● 第42回 日本全國漁港大會 참관기

漁港개발促進위한 '結集의 場' 으로 큰 구실



孫 井 植
〈韓國漁港協會長〉

地域開發에도 寄與하는 全國漁港大會

일본전국어항협회장 佐藤稔
夫씨의 초청으로 지난 10월25
일 일본 高知縣 高知 지바산센
타에서 개최된 일본 제42회 전
국어항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高知縣과 高知
市 그리고 高知縣 어항협회의
후원으로 전국어항협회가 주최
한 연례행사로서 이번 대회에
는 전국에서 어항, 어업관계자
등 약 3천5백50여명이 참가하
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 어항대회
는 어항의 정비촉진과 아울러
어항관계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추진 등 어항관계 정치력 결집

의 장으로서 어항의 개발촉진
에 크게 기여하는, 수산계에서
는 매우 큰 행사의 하나이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이 대회
에 초청을 받고 참석한 결과
한일간의 우호친선은 물론 어
항관계인사 및 양국협회간의
우의가 매우 돈독해지고, 잘
정비되고 있는 어항을 직접 봄
으로써 우리나라 어항과 협회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일본은 어항건설에 있
어 어업생산, 수산물 유통의
거점으로서, 지역사회의 핵으
로서의 그 정비를 강력하게 추
진하고 있으나 더욱 근년에 와
서는 여가이용의 다양화·고도
화를 배경으로 한 레크리에이
션의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국민휴가 縣』 목표 海洋觀光에 意慾

이번 대회에 있어서 高知縣 측은 보통때와 달리 매우 의욕에 넘쳐 있었으며 회장에서 縣의 특산품인 유자 주스가 제공되었고 특산품전시·縣내의 92개 어항 항공사진전시 등이 있었으며 특히 「國民休暇縣 構想」을 내세워 앞으로의 해양관광·레크리에이션 분야개발에 열기를 올리는 인상을 주었다.

대회에 앞서 관례의 전야제인 어항대회 환영리셉션이 10월 24일 밤 高知市에 있는 三翠園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본인이 일본전국어항협회장 佐藤稔夫씨에게 한일양국 어항협회간의 우호친선과 협력증진에 기여해 주신데 대한 사의를 표하는 감사패를 증여하였는데 이때 참석자들로부터 양국협회의 긴밀한 연휴에 대하여 뜨거운 박수가 있었다.

대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당초 예상했던 3천4백명보다 더 많은 3천5백50명이 참가하여 대회는 열기가 매우 흥만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佐藤 전국어항협회장은 추최자의 인사말씀에서 끊임없는 어항정비는 어항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착실히 그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어항이 전국 각지에서 수산업개발의 기반으로 공헌하고 있음은 매우 흐뭇한 일로 여긴다고 말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대회를 계기로 어항정비 목표실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항·어촌정비는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항기능정비는 물론 일반시민과 접근할 수 있는 어항환경정비, 도시와 어촌간에 친교할 수 있는 장소의 형성 등 시류에 맞는 시책을 가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새로 일본정부가 내년도부터 정부예산에 특별히 책정한 2조 3백억엔 규모의 생활관련 공공투자에 있어서 도시에 비하여 그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어항·어촌의 생활환경정비 확충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촉진과 1991년도 어항에 산증액확보 등 5개 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어항·어촌정비의 추진을 보다 더 강하게 촉진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 개최지인 高

知縣은 지형적으로 북쪽은 높은 四國산맥이 뻗어있고 남쪽에는 구로시오가 바로 흐르는 태평양쪽으로 707km나 되는 해안선이 뻗어있어 옛날부터 수산업, 농업, 임업 등 1차산업과 제지 등 전통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 가운데 瀬戶대교 가설로 본토와 四國가 일체화됨으로써 경제구조가 크게 변천하고 있으며 특히 어항에 있어서는 縣의 기간산업인 수산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縣이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國民休暇縣·高知」조성에 필요불가결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으며 도시인과 교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이 지역에서 갖게 된 것은 매우 큰 뜻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개발에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내빈축사에서 농림수산성 정무차관 東力씨는 농림수산성은 여러 시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 어항은 어업생산과 수산물유통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어촌을 포함한 지역사회 생활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수산업진흥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므로 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에 따라 어항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해안시설에 있어서도 그 계획적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 大原一三씨와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 谷川寛三씨도 축사에서 어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 이 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내빈들의 축사가 끝나고 高知縣측의 환영인사에서 中内力지사는 이번 대회의 성과가 21세기 수산업의 큰 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내빈축사와 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의 소개에 이어서 대회순서에 따라 의사진행에 들어갔으며 대회의장 선임에 있어서는 佐藤 전국어항협회장이 일임을 받아 관례에 따라 대회개회지인 高知縣 어항협회의 中谷岸造 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했다. 대회 부의장 선임에 있어서는 대회의장이 長崎縣 어항협회장 高平米雄씨와 香川縣 어항협회장 松田幸一씨를 지명, 동의를 얻어 의사진행에

들어갔다.

所要豫算 확보 등 촉구 大会宣言·決意 등으로

의사진행에 앞서 高知縣어항협회 부의장 武政光男씨가 대회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수산업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항을 단순히 생산·유통의 기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중심지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대에 적응하는 관점에서 정비하여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어촌을 창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전국어항관계자의 총의로서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이에 관련된 제시책의 전국적인 전개를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결의안 5개를 채택, 이에 대하여 각각 제안이유와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승인 결의했다. 이 결의사항을 진정서 채택, 각 도부현의 어항협회장 등을 결의 실행위원으로 하여 국회와 각 관계기관에 진정할 것도 결의했다. 결의사항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의 건”

1988년도부터 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추진에 노력해 왔으나 계획의 제3차년도인 1990년까지의 투자액은 2,743억엔으로서 그 진도는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1년도에 있어서는 현재의 어려운 어업정세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어항정비사업의 계획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를 강하게 요구한다.

○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예산 확보의 건”

생산과 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어항의 정비와 병행, 어항배후에 대한 어항집락의 생활환경을 총합적으로 정비함과 함께 쾌적하고 운택한 어항환경의 형성에 필요한 시설정비를 행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1991년도에는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환경정비 관련예산의 확보를 강하게 요구한다.

○ “제5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의 책정과 예산확보의 건”

현재 1986년에 책정된 제4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해안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안의 정비수준은 아직 저위에 있다. 어촌에 대한 보다 더한 안전확보와 쾌적한 해안환경의 창출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년도로서 끝나는 현행계획에 이어 1991년도를 시작으로 하는 제5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의 책정과 예산확보를 강하게 요구한다.

○ “어항관계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액 경감의 건”

국가가 재정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공공사업에 대한 효율보조금의 인하를 실시해 왔으나 이에 따라 지방부담액이 많아 자치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어항을 갖고 있는 市町村은 벽지, 이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중 어항사업이 점하는

비가 높아 원활한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1991년도에 있어서 어항관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복원 등에 의해서 지방부담액의 경감을 강하게 요구한다.

○ “어촌관계생활관련 중점화책 등 확보의 건”

어촌에 있어 생활환경의 정비는 도시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경관을 갖고 있는 많은 어촌은·도시주민 등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함을 강하게 요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어항·어항해안 및 배후 어촌의 생활관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은 수산업진흥 뿐만아니라 연안역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을 기하는데 극히 긴요한 과제이므로 1991년도에 있어서는 긴급정비를 요하는 어항·어촌의 생활환경정비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점화책의 확보를 강하게 요구한다.

**外廓施設에 더욱 注力
强度높은 태풍에 對應**

대회종료후에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高知縣의 유지 여성들에 의하여 화려하고 활기있는 「요사고이 무용과」 劍舞 土佐犬의 위용등장 등 아드라구손이 행해졌다. 이를 관람후 참가자들은 동서 2개 코스로 나눠 高知縣내 어항시찰에 나섰다.

필자는 대회 본부팀의 동부 코스에 소속되어 高岡어항과 심층수이용연구센타를 시찰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필자 일행만 별도로 室戶岬어항을 더 시



찰했다.

최초의 방문지인 高岡어항은 四國室戶岬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치망과 낚시어업, 포패어업을 주로하는 연안어업의 기지로서 암초지대에 구축되어 있는 전형적인 굴입식 어항이다.

高岡어항은 제5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1973년도부터 수축사업과 어항확장에 착수하여 제6차, 제7차 계획에 따라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을 확충했으며 연안어업 거점항으로서의 기능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제8차 계획으로 항구부와 박지의 정온도 향상을 위하여 바다쪽의 방파제 정비를 진행중에 있었다.

다음은 동부예정시찰을 마치고 高知市로 돌아오는 길에 中谷岸造 高知縣 어항협회장의 안내로 室戶岬 어항에 대한 시찰을 했다.

室戶岬 어항은 1630년에서 1675년까지 굴입식어항의 선구

적인 어항으로 본격적인 개수가 시작된 어항이다.

이 어항은 원양참치어업의 기지로 매우 번영하였으나 200해리 체제의 정착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어항이다. 그러나 어업자들의 경영개선의 노력결과로 어업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원양어선의 출어준비와 휴식을 위한 어항시설정비가 기대되고 있다.

또 이 어항은 근접해 있는 高岡어항과 같이 어항·어촌정비 사업지역의 지정을 받아 앞으로 「土佐海岸街道 휴양지構想」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室戶岬을 비롯한 관광의 거점으로서 어업과 어항정비와의 조화를 이룬 어항으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는 어항이다.

高知縣의 어항은 태평양쪽을 향해 펼쳐있는 土佐만에 면하여 해안선 전역에 걸쳐 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해안선 연장 707km에 산재하고 있는 어항은 92개어항이나 되며 또 어항으

로 이용되고 있는 항만도 19개 항이 있어 평균 6.4km간격으로 1개의 어항이나 항만이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高知縣의 어항은 태평양에 직접 면하여 수산물이 풍부한 반면 태풍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항의 입지조건은 매우 좋지 않은 점이 있어 천단고(天端高)가 +16m까지 되는 방파제 건설이 필요하며 쇄파용 블럭(TTP 등)이 80톤이나 되며, 1,700톤의 케이슨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어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어항시설에 있어 외곽시설의 건설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다.

■ 深層水 有效利用 나서 陸上型 실험시설도

시찰코스 중 전세계에서 3개 밖에 없는 해양심층수 연구소를 시찰했다.

근년에 와서 해양심층자원이 각광을 받게 되자 일본은 이를 이용하는 기술개발에 크게 기대를 갖게 됨으로써 일본과학기술청은 1986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양심층자원의 유효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海洋立縣을 목표로 하고 있는 高知縣은 1985년에 室戶岬 바다쪽을 이 연구해역의 모델로 지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1986년부터 해양과학기술센터, 기상청, 기상연구소, 高知대학 남서해구수산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심층수의 실태해명에 들어 갔으며 이와 병행해

서 심층수취수장치의 개발연구에 들어갔다.

이 연구성과를 토대로 1988년에는 高知縣에서 육상시설을 하고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는 취수장치를 각각 분담하여 시설함으로써 세계에서 세번째로 육상형 심층수 실험시설을 건설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는 이 시설을 활용하여 본 연구소와 국립연구기관 및 민간의 수개회사가 참여하여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심층수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초·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구명된 심층수 특성으로서 저온특성, 부영양특성, 청정특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수산부문에서 현재 각종의 중요생산과 중간육성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기 사료의 안전확보, 사육생물의 질병감모, 고수온시의 환경관리 등의 해소로 인한 재배어업의 안전적 발전과 육상에서의 양식업에 활용하는 문제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이 연구소에서는 1989년부터 심층수의 특성에 대한 응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심해성어류의 사육기술, 대형해조류의 성장등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육상에서의 냉수성어류나 해조류 양식업의 실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해양개발 새 轉機 摸索 相對的落後 만회 촉구

이번 高知縣대회 참석은 靑森·靜岡에 이어서 세번째로 참

석한 대회인데 대회때마다 질서정연한 행사와 아울러 개최지의 특성을 살린 대회준비 그리고 지방민의 환영행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열의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이번 개최지인 高知縣은 四國島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한 해안을 끼고 있는 縣으로서 본토와 연락시키는 瀨戶대교의 개통으로 과거의 섬이란 인식에서 탈피하여 그 변화가 크게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본토에서 휴가내방 등 전국에서 많은 휴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國民休暇縣·高知」를 선언하고 縣勢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안어업에 있어서 해양심층수연구결과의 응용으로 새로운 해양개발의 전개를 구상하고 있는 점도 타지역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수산시책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어항·어촌의 정비추진과 1991년도 예산의 만액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도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는 어항·어촌의 생활환경개선정비사업비 책정을 새로 요구하는 결의가 있었다.

또 이 대회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회에서 채택된 선언, 결의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전국어항관계자의 열망에 대한 실현을 위하여 예의 노력하겠다는 다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소 대조적이라고 느꼈다. ㉠